원숭이두창 확진 2명째…백신 접종 대상 넓혀야 할까?

두번째 확진자 발생…지역사회 전파 우려 커져
미국·유럽 '백신 쪼개기' 광범위 접종 전략 시행
우리나라, 중위험 이상 '밀접접촉자'만 백신 접종
전문가들 "아직 접종 대상 확대 고려할 정도 아냐"

국내에서 2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원숭이두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접종 용량을 줄이고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도입된 백신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2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A씨는 유럽 방문 후 지난달 18일 입국했지만 이달 1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5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 접촉자는 없지만 가족과 친구 등 중위험 접촉자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명은 의원, 약국 등에서 접촉한 저위험 접촉자다.

방역 당국은 현재 중위험 접촉자에 대해 최종 노출일로부터 21일간 의심 증상 등을 능동 감시 중이다. 의료진 등은 보호구를 착용했고 체액에 직접 노출됐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2주나 걸렸기 때문에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 첫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5만명이 넘는 확진자를 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말 이후 두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다. 최근 원숭이두창은 대부분 남성 성소수자들의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 확진자 발생이 집중돼 있던 지역에서는 최근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원숭이두창의 빠른 확산에 따라 개인들이 인적 접촉 방식을 절제 위주로 변화시키고 있고 각국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전략을 시행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숭이두창 예방 목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 3세대 백신 '진네오스'는 제조사측의 생산 제한으로 물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한정된 백신 물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회 접종분을 5명분으로 나눠 접종하고 있다. 피부 깊이 투여하는 '피하주사' 대신 피부 바로 밑에 투여하는 '피내주사' 방식으로 접종하면 적은 백신 용량으로도 높은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뿐만 아니라 최근 2주 안에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접종률을 높여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유럽 국가들도 2차 접종이 기본인 진네오스를 1차만 투여하거나 미국처럼 1명분을 5명분으로 쪼개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용량으로 피하주사하는 진네오스의 일반적인 사용법을 따르고 있다. 또 중위험 노출자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2명에 불과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확보한 진네오스 물량(5000명)이 한정적이어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백신 접종 대상 확대를 고려해야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원숭이두창이 전세계적으로 5만명이 누적 확진됐지만 확산세는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원지인 유럽과 미국에서도 더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미국과 유럽에서 쓰고 있는 전략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밀접 접촉자를 위주로 백신을 접종하고 확진자는 테코비리마트 등 치료제를 투약하는 정도로 대응 가능할 것 같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5000명분 정도인데 1명분을 5명분으로 쪼갠다고 해도 (전반적인 남성 성소수자 인구집단에)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9년간 생리통 환자 절반은 젊은층…2배 증가"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월경통 환자 의료이용 분석
2010년 대비 2018년 환자 55%, 의료비 116% 증가
15~24세 청소년·젊은 여성 환자 수 2배 가량 급증

한 여성이 월경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자생한방병원 제공)

최근 9년간 자궁에는 문제가 없지만 월경 자체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원발성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절반은 젊은층이고, 같은 기간 청소년·젊은 여성 환자 수는 2배 가량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박진훈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전체환자표본(HIRA-NPS) 자료를 활용해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9년간 원발성 월경통과 상세불명의 월경통을 진단받고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환자 4만1139명을 연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발성 월경통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 수는 2010년 4060명에서 2018년 6307명으로 약 55.34% 증가했고 총 비용도 115.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5~24세 46.67%, 25~34세 28.04%, 35~44세 14.95%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의과와 의과 모두 이용하는 환자도 15~24세 연령층이 54.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원발성 월경통 환자 절반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15~24세의 청소년 및 젊은 성인 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1715명에서 3429명으로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팀은 부인과질환 치료를 기피하는 미혼 여성들의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원발성 월경통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도 분석했다. 내원 유형을 살펴본 결과 외래 99.69%, 입원 0.31%로 대부분 외래 치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환자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내원 횟수는 한의과의 경우 매년 약 3.5회, 의과는 약 1.5회로 한의 의료기관의 내원 빈도가 의과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9년간 의료서비스 제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치료(44.39%), 진찰(36.7%), 검사(10.88%) 순이었다. 한의과의 경우 치료가 72.41%이었고, 진찰(24.14%)이 뒤따랐다. 반면 의과의 경우 진찰(47.89%)과 검사(20.57%)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서비스 비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치료비 비중이 전체의 55.86%로 가장 높았고 의과는 진찰료가 69.74%로 가장 많이 지출됐다.

연구팀은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한의치료법의 총 치료 횟수, 총 비용, 1인당 연평균 비용도 분석했다. 그 결과 침치료가 5만4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비용과 1인당 연평균 비용도 침치료가 각각 20만4594달러, 25.18달러로 가장 많이 지출돼 원발성 월경통 치료에 있어 침치료가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침치료에 이어 뜸과 온냉경락치료, 부항 등이 뒤따랐다.

논문의 제 1저자인 박진훈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국가 단위 의료현황 연구가 많지 않았던 가운데 한의과와 의과로 구분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지닌다"며 "총 9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현황을 넓게 살펴봄으로써 보건 분야 전문가들에게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시범 사업 및 정책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경통은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뉜다. 원발성 월경통은 자궁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경 자체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반면 속발성 월경통은 자궁이나 골반 등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며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골반 염증 등이 원인이 된다.

특히 원발성 월경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에서 발생한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원발성 월경통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8만1248명에 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 급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우먼스 헬스(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Health)' 8월호에 실렸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